

북한
영화의
이해

통 일 원

1992

목 차

1. 북한영화의 특성 / 3
2. 영화예술 이론 / 6
3. 영화의 종류 / 10
4. 제작 실태 및 촬영소 현황 / 13
5. 영화인의 지위 및 양성 / 16
6. 영화 보급 및 주민이용 / 18
7. 해외 교류 활동 / 20
8. 북한영화의 문제점 / 21
- 부 록 / 23

1. 북한영화의 특성

영화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호소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에서는 특히 중요시하는 예술분야이다.

일반적으로 영화의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우리는 “건전 오락의 육성과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하여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자주적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계급혁명의 사상적무기”라고 규정함으로써 영화가 주민사상 교양의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즉 영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에 입각하여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고도로 발양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당의 정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는 달리 영화가 해야 할 일과 갖추어야 할 이상적인 형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다.

예컨대 남녀간의 사랑, 친구간의 우정,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까지도 극적 감동의 효과를 위한 하나의 촉매제일 뿐 결론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과 당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는가 하면 선과 악을 지나치게 작위

적으로 구분하거나 대비시켜 관객의 눈물을 강요하는 등
신과조의 요소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서방영화의 주요기능인 오락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작품소재나 주제 선택이 한정되어 있으며 결국
김일성부자우상화와 체제옹호를 위한 선전 선동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영화 정책의 기본은 북한헌법, 김일성 교시 그리
고 김정일이 저술하였다는 『영화예술론』에 잘 나타나 있
다.

북한헌법 제45조

- ◆ 국가는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
다. 국가는 작가·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장려
하며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을 문
예활동에 널리 참가시킨다.

김일성 교시

- ◆ 영화는 대중교양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2권 p. 274)

- ◆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하는데서 여러가지 예술이 다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설과 영화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특히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김일성저작선집 4권 p. 151)

김정일 지시

- ◆ 영화는 정치사상 교양의 힘있는 수단이며 문화정서 교양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 교양도 하고 정서 교양도 하여야 합니다.

(조선영화 1992. 1월호 p. 54)

2 영화예술 이론

1973년 김정일이 저술했다는 『영화예술론』은 기존의 영화이론을 정리하여 발표한 것인데 김일성 주체사상에 입각한 문예이론을 영화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문헌으로서 북한 영화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영화에 대한 김정일의 관심은 대단하여 영화제작과 보급문제에서부터 심지어는 영화종사자들의 일상생활까지도 일일이 지시하는 등 영화의 “만물박사”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 예술론』의 골자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의 영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 영화문학 (시나리오)

영화가 지향해야 할 모델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서 영화 문학에서는 생활속에서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사상적 알맹이(종자)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전형적인 생활상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그릴 것을 강조한다.

즉 영화의 기능이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자주성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므로 영화문

학의 종자는 이런 기능을 지침으로 해서 주제와 소재 및 내용을 찾아내야 한다.

나. 영화와 연출

연출가는 영화의 종자를 깊이 파악하여 사건의 논리적 연결보다는 감정의 자극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자본주의의 “연출 제일주의”를 배격하고 인민의 단결과 협조에 바탕을 둔 집체적 창작을 중시해야 한다.

다. 배우와 연기

『영화예술론』에서는 배우의 위치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배우는 연출가나 영화창작에 이용하는 하나의 형상수단이 아니라 일정한 세계관과 구체적인 공산주의 사상감정, 생활체험 등을 미적, 창조적 능력으로 화면에 재현하는 예술가이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하여 항상 새롭게 생활을 실천하고 이에 따라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면 노동계급적 의식을 갖고 그 계급의 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파악하여 자기자신의 사상과 감정으로 받아들여 연기해야 한다.

라. 촬영기술

촬영은 모든것을 간명하게 나타내야 하고 노동계급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려야 하며 촬영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상성과 예술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수 있는 촬영방법의 개발을 강조한다.

마. 영화미술

영화미술은 민족적 특성을 올바르게 구현하되, 현대감각에 잘 맞도록 진보적 입장에서 발전시켜야 하며 민족적인 회화형식, 분장방식, 의상, 생활기품, 건축양식 등을 기본으로 해서 장치물, 소도구 등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바. 음악효과

음악은 인민들의 노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들의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가장 생활적 예술로 간주하고 있다.

“노래가 없는 영화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한편의 영화속에 반드시 3~4곡의 주제가를 넣으므로써 심파조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한편의 음악과 노래, 하나의 음향에 의해서도 관객들에게 생동하는 영상과 깊은 정조적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 영화편집

화면을 가위질하며 기교적으로 연결시키는 부르주아 영화기법과는 달리 영화에서 묘사되는 인간관계와 사건의 정황전개 등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의하여 극적 효과가 증대되도록 편집함으로써 극적 흐름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으로서의 주체사상이 강조되어야 한다.



▲ 「농민영웅」 촬영 풍경

3. 영화의 종류

가. 예술영화

일반적으로 『극영화』라고 일컫는 북한의 『예술영화』는 예술·오락성 보다는 당이 정해준 주제에 얽매어 매우 단조롭고 도식적인 경향이 농후한 정치 선전·선동 차원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예술영화의 주제는 대체로 김부자 우상화 및 충성심제고, 주민노력선동, 한·미 모략 비방, 인민군의 용감성 찬양 등 4~5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김일성우상화 영화이며, 8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한영화는 “김일성 일대기”등 대부분 서사적인 내용으로서 장편이 많으며 주제 음악을 중요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나. 기록영화

기록영화(Documentary) 역시 북한체제의 우월성 선

전용으로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데 크게 순수기록 영화와 시보영화로 나누어지며 시보는 우리의 “뉴스”에 해당되고 순수기록영화는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기획에 의해 제작된다.

기록영화의 주제는 주로 김부자 찬양행사 및 행적날조 미화, 북한 사회주의 건설상 등 인데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김부자 행적날조 및 이상화 선전물이 대중을 이룬다.

예술영화와 마찬가지로 주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과장과 조작이 많아 진실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과학영화

과학영화는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대중과학영화, 과학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교육영화, 과학자료와 기술적 자료들을 취급하는 과학통보영화 등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연구를 위한 것보다는 일반대중의 교양을 위한 영화가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거의가 흑백 영화이다.

라. 아동영화

아동영화는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예술영화, 만화영화, 인형영화, 그림영화 등으로 나누어 지며 공산주의 도덕을 다룬 보편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4. 제작 실태 및 촬영소 현황

가. 제작 실태

북한에서 제작되는 영화는 거의 모두가 시나리오로부터 감독, 배우선정 기타 제작과정, 심지어 영화보급에 이르기 까지 김정일이 직접 간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피 바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등도 김정일의 지도로 이루어 졌다고 선전하고 있다.

특히 영화인들은 그들의 창작활동의 계획에서부터 소재, 주제에 이르기 까지 당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술정책에 맞추어 제작계획을 년·월별로 작성하여 영화인동맹 및 문화예술 총동맹의 검열을 거쳐 노동당 소속 문화예술 부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영화인동맹

영화분야 종사자들을 당에 예속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하는데 이용하는 예술단체로서, 영화인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옹호하기 위한 서방세계의 “영화인 협회” 등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전혀다름.

『조선영화인동맹』 임무·기능

- ◆ 영화분야 종사자들속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침투, 그의 성과적 관철에 동원
- ◆ 영화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실무교육 교양을 실시, 공산권의 영화분야 선진기술을 도입·보급
- ◆ 영화인들속에 김일성의 주체사상 체계를 확립, 공산주의 교양 강화에 기여
- ◆ 영화생산계획을 질량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영화인들을 지도 통제하거나 고무
- ◆ 영화인동맹·당위원회를 통하여 영화분야 종사자들의 당생활을 지도·통제·감독

나. 촬영소 현황

북한의 영화촬영소는 『조선영화인동맹』과는 협조관계에 있으며 『조선 2·8영화촬영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무원의 문화예술부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음.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47년 2월에 창립된 북한 최대의 영화제작소로서 산하에 야외촬영소와 배우양성소를 두고 있으며, 주로 혁명 전통, 사회주의 건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 조선 2·8 예술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의 영화촬영소로서 1959년도에 인민군의 용감성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하였는데 주로 군사전쟁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 조선기록영화촬영소

1957년도에 창립되었으며 주로 김부자 동정, 북한건설상 등 연간 1백여편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과학분야와 아동분야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야 종사자들은 일일이 그림으로 묘사하는 “Animation 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영화인의 지위 및 양성

가. 배우의 사회적 지위

북한 주민들은 영화배우나 감독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간부가 아닌 인물로서는 상당한 보수와 명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배우중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인민배우”로서 이들의 생활수준은 부장급(장관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공훈배우”로서 이들은 원로연기자 또는 중견연기자로서 경력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그러나 “오미란”등과 같이 30대 초반에 인민배우가 되는 경우도 있다. 공훈배우 아래에도 여러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등급간의 보수 차이는 20원 내외이다.

나. 영화인력 양성

영화인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평양영화대학(1971년)이 있으며, 이 대학은 영화전문가외에도 방송원, 사진촬영소 등 영화매체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을 주로 양성하고 있다.

평양영화대학은 영화문학창작과, 영화이론과, 영화연출과, 영화촬영과, 영화배우학과 등 5개 학과, 3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실무와 이론을 분리하여 교육하고 있다.

평양영화대학외에 평양예술대학 (예술인재교육 4년), 2·16 예술전문학교(6년), 7·18 고등예술전문학교(6년) 등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영화배우 양성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배우양성소”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영화문학통신원강습”이라는 특별과정을 통하여 일종의 아마추어작가나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을 양성, 발굴하기도 한다.



▲ 「피바다」중에서

6. 영화보급 및 주민이용

북한영화는 주민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를 위한 사회교육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보급체계는 우리와는 달리 광범위 하고도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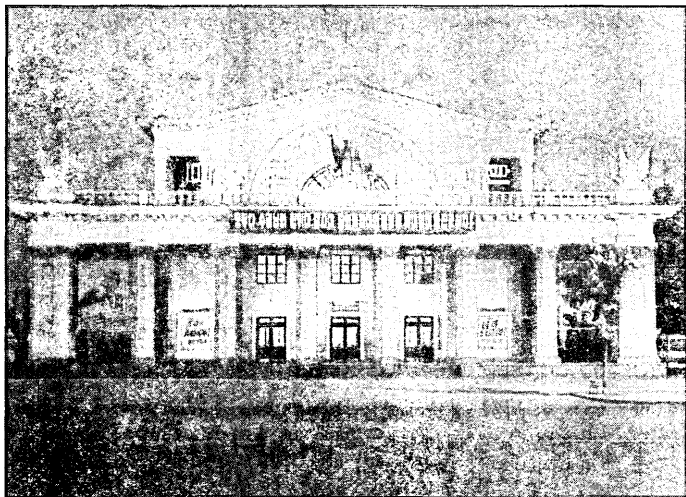
영화의 보급은 문화예술부 산하 『영화보급사업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영화보급일꾼』들을 동원하여 평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동농장, 공장등 작업장이나 시민문화회관 등에서 상영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각 직장별로 영화감상 및 이른바 “실효투쟁”을 통하여 “영화주인공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영화내용의 생활화를 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연간 관람하는 영화는 18편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 지구상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의무적 관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선전 및 혁명성이 배제된 내용의 영화가 인기가 있어 일요일에 만수대 TV방송국

에서 방영하는 외국영화는 시청률이 높으며 '80년대 중반 신상옥 최은희가 제작한 『사랑 사랑 내사랑』 및 『길』 등은 대단히 호평을 받았다 한다.

현재 평양에 있는 영화관으로는 “대동문 영화관” “락원 영화관” “개선영화관” “국제영화관” 등이 있으며 이중에 “개선영화관” “국제영화관”은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 영화제에 대비하여 건축한 것으로서 시설이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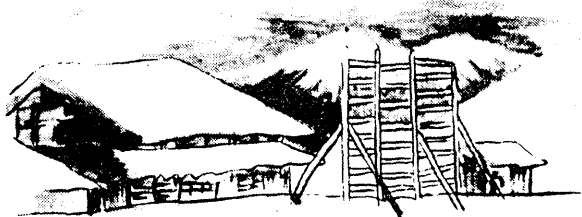
▲ 대동문 영화관 전경

7. 해외교류 활동

북한영화의 해외합작 및 교류는 거의 비동맹권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혈맹관계”를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다. 간간이 지역 영화제에 출품하기도 하는데 이는 김부자가 해외에서도 칭송받는 인물인 것처럼 선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모스크바영화제”, “타시켄트영화제”를 비롯하여 공산권과 비동맹권 국제영화제에 계속 출품하고는 있지만 성적은 좋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1987년 평양에서 개최한 비동맹영화제에서는 예술영화 『도리지꽃』과 만화영화 『도적을 쳐부순 소년』 등이 “햇불금상”을 수상하였다.



8. 북한영화의 문제점

북한영화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천편일률적인 정치사상 선전 내용으로 인한 주민들의 식상, 시설낙후, 연출·연기자의 자질부족, “설화사용”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영화는 예술적 작품보다는 구호적인 선전·선동의 내용을 중시하여 따분하고 지루해 주민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연기자·연출자들은 거의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북한영화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느린 화면의 전개와 모방위주의 제작 풍조, 연기수준의 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다.

세째, 북한영화는 아직도 화면밖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설화』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예술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북한은 김부자세습체제 유지를 위하여 소위 “우리 식대로 살자”라는 주체사상 교양에 더욱 주력하는 한편, 김정일을 우상화 하기 위한 내용의 영화제작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제 세계적인 변화의 물결속에서 당정책 선전 도구가 아닌 영화다운 영화로 그 방향을 수정해야 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의 지시

- ◆ 영화는 당보의 사실과 같습니다. 영화예술이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려면 때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 요구를 민감하게 화면에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화예술이 철저히 당적인 예술, 인민적인 예술로 될수 있습니다.
- ◆ 새로운 시대가 문학예술앞에 제기하는 높은 요구는 오직 문학예술부문에서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과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성격에 맞는 새로운 창작지도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 하여야만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선영화 1990. 10월호 p. 42~43)

부	록
---	---

1. 북한영화 주제별 분류
2. 주요 시나리오 작가
3. 지역별·장소별 영화상영 통계
4. 북한영화의 시대별 변천내용

1. 북한영화 주제별 분류

예술영화

구 분	대표적인 영화
김 일 성 우 상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의별, 민족의 태양, 해발, 푸른소나무, 사령부를 멀리떠나서, 압록강을 넘나들며, 미래를 꽃피운 사랑, 기다려다오 등
김 부 자 와 당 에 대 한 총 성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혈육, 요람, 나의 행복, 이세상 끝까지, 열네번째 겨울, 이름없는 영웅들 등
계 급 혁 명 고 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바다, 꽃파는 처녀, 탈출기, 소금, 한자위 단원의 운명, 성황당 등
인 민 군 의 용 감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미도, 우리를 기다리지 마라, 돌아설 수 없다. 언제나 한마음, 불타는 모래불 등
주 민 노 력 동 원 선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련을 뚫고, 정방공, 로동가정, 우리집 문제시리즈, 참된 심정, 땅과 말하는 처녀, 아름다운 기슭, 도라지꽃 등
기 역 사 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매와 범다리, 춘향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길은 빌리지 못한다 등

기록영화

구 분	대표적인 영화
김일성부자 찬양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대한 귀감, 누리에 빛나는 향도의 깃발, 만대에 길이 빛나리, 수령님 가시는 곳마다 행복이 꽃피네, 계승기, 인민의 념원, 압록강, 주체사상 토론회, 만경대의 노래, 아버이의 품, 내조국, 영생의 기치 등
자연·사적 등 선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혁명사적지, 위대한 은인, 봉산탈춤, 조선의 사시절, 오랜 문화의 노래 등
대남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라, 원한의 땅 광주를 고발한다, 침략자 미제를 고발한다, 판문점, 혈육의 뜨거운 손길 등
당에대한 충성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초소를 지켜, 맹산군 당책임비서, 미래를 키우는 마음, 귀국공민 로동일가, 세상에 부럼 없으라 등
건설현장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빈터에서 이렇게 자라났다. 우리의 건설, 오늘의 평양, 국토건설의 새역사, 개선문, 빙상관,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 평양지하철 등

과학·아동영화

구 분	대표적인 영화
과 학 영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락새, 우리나라 노루와 사슴, 곤충, 영양액 재배, 농업상식 4호, 천연기념물 3호, 공중도덕과 질서, 바다가 양식장 꾸리기, 야산을 리용한 풀밭조성, 전자공업의 현실태와 전망, 탄산소다, 새로운 먹이풀 비듬, 양강도국체려관 건설 등
아 동 영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끼전, 소년장수, 동궁전을 찾아서, 소동은 왜 일어났을까요, 청개구리기상대, 용감한 기러기, 제굴로 들어가라, 뼈라, 자루속에 든 승냥이, 우리통신원, 시한폭탄, 두장군 이야기, 꼬마박사, 늙은 왕문어, 어린머슴, 놀고먹던 꿀꿀이, 너구리의 겨울차비, 쇠도끼 금도끼, 아금당, 령리한 너구리, 다름이와 고슴도치, 전기절약, 초소원 남이 등

2. 주요 시나리오 작가

◆ 김 승 구

월북작가로서 최초의 극영화 『내고향』을 비롯하여 『빨치산 처녀』, 『춘향전』 등 10여편의 작품을 썼으나 최근에는 작품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한 상 운

최초의 전쟁영화 『정찰병』을 쓴 인물로 북한영화 발전에 기여한 작가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표작으로 『바다는 부른다』, 『광명을 찾아서』, 『인민교원』 등 노력선동 및 체제찬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음.

◆ 주 동 인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며 1964년도 작가동맹상무위원에 오른 인물로서 현재 생존여부 불투명.

대표작으로 『아름다운 노래』, 『신혼부부』, 『애국가』, 『한 전사의 이야기』 등이 있는데 특히 『대지의 아들』, 『전사의 맹세』가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음.

◆ 백인준

현 “문학예술가총동맹” 위원장으로 북한 문화예술계의 최고 실력자임.

“백두산창작단” 단장을 거치면서 김부자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김부자우상화 작품을 발표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성장의 길에서』, 『할아버지의 심정』, 『마을사람들 속에서』, 『금희와 은희의 운명』, 『민족의 태양』 등을 집필했음.

◆ 리종순

현 “영화인동맹” 위원장, “백두산창작단” 부단장으로서 주로 항일 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한 김일성 우상화 주제의 영화 시나리오를 썼으며 『두만강』, 『붉은꽃』, 『한 지대장의 이야기』, 『축배』 등을 썼는데 특히 『한 지대장의 이야기』는 김일성으로 부터 찬사받은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음. 백인준과 더불어 1950대부터 현재까지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인물임.

◆ 리 춘 구

현재 북한 영화계의 가장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작가로 백인준과 리종순의 뒤를 이어 급성장 하고 있는 인물로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 되고 있음.

대표작으로 『청춘의 심장』, 『군당 책임비서』, 『봄날의 눈석이』, 『기다려다오』, 『도라지꽃』 등 김부자우상화 주제, 체제찬양, 로력선동 등 다양한 작품의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음.

특히 『도라지꽃』은 김정일로부터 칭찬을 받은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음.

◆ 리 진 우

80년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전쟁영화시나리오 전문작가로서 다부작(20부)으로 제작된 『이름없는 영웅』 및 전쟁영화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월미도』 등의 작품이 있음.

3. 지역별·장소별 영화상영 통계 (1988년)

가. 장소 별

단 위	상영회수	관람자수	단 위	상영회수	관람자수
영 화 관	33,285	11,264,500	극 장 영 사 시 설	2,981	1,408,800
시 군 문 화 회 관	64,238	24,111,200	공 장, 기 업 소 영 사 시 설	119,299	43,476,500
이 동 영 사 대	24,439	5,937,300	협 동 농 장 영 사 시 설	352,846	86,452,200
도 선 전 대 (문 화 회 관)	2,981	1,408,800	기 타 영 사 시 설	16,009	4,962,400

나. 지역 별

도 별	상영회수	관 랑 자 수	도 별	상영회수	관 랑 자 수
평 양 시	52,955	17,642,700	함 남 도	78,171	27,276,700
평 남 도	66,523	18,117,200	함 북 도	63,653	19,396,500
평 북 도	71,601	22,689,500	량 강 도	27,696	5,583,000
자 강 도	38,084	10,234,700	개 성 시	11,619	3,769,000
황 남 도	75,814	20,169,300	남 포 시	12,319	4,727,000
황 북 도	53,199	11,931,200	향 산 군	1,839	602,000
강 원 도	45,892	11,935,800	계	599,365	174,092,600

4. 북한영화의 시대별 변천내용 (요약)

시 기	특 징	대표적 영화
제 1 기 (’4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영화가 대부분임. • 영화의 배경이 1930년대 • 제작조건 열악으로 구소련수입영화가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건설, 민주선거, 인민위원회 등 • 내고향(최초의 극영화)
제 2 기 (’50.6- ’5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련지원으로 시보·기록영화 중심으로 제작활동 전개 • 한·미에 대한 항쟁의식과 적개심 고취가 주제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의 전쟁, 세계에 고향, 식량전선, 또다시 전선으로, 정찰병, 소년 빨치산,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 광산철도 등
제 3 기 (’53.7-’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후복구건설 주제 및 대남모략 비방과 노력선동 영화가 주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철, 건설의 하루, 평양시 복구, 신혼부부 행복의 길, 춘향전, 애국가, 진우, 산에 등
제 4 기 (’5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의 항일빨치산미화 및 소위 천리마시대에 맞는 사회주의 위한 노력선동 영화가 중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를 사랑하라, 녀고원, 첫병기창, 한 지대장의 이야기, 성장의 길에서, 천리길 등

시 기	특 징	대표적 영화
제 5 기 (1960말-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기> • 김일성 우상숭배물 양산과 혁명전통 및 계급교양 주제영화에 대해 강조함. 	<p><전 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꽃파는 처녀 • 유격대 오형제 • 마을사람들 속에서 • 전사의 맹세 • 로동가정, 할아버지의 심정, 금희와 은희의 운명 등
	<p><후 기> 1975-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부자 세습체제 합리화 및 당위성 선전과 중국 찬양 친선 및 해외 선전용 영화를 양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의 태양, 조선의 별, 려명, 봄날의 눈석이, 보중, 위대한 품, 준엄한 봄, 서두른 결혼, 우리 대의원 등

북한영화의 이해

1992년 8월 8일 초판 발행

발행처 : 통 일 원

정 보 분 석 실

(특수자료과)

☎ 730-7013/4

인쇄처 : 양동문화사
